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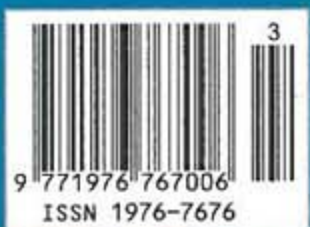
Magazine ART

세상이 아름다운 Magazine 月刊 매거진아트

Cover Story

한라에서 설악까지

김선진



vol.107

March. 2014

3

Kim Seon-jin



▲ Julian Opie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
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344.3cm

Julian Opie

2014. 2. 13(목) - 3. 23(일) 국제갤러리 2관 및 3관 T. 02-735-8449(종로구 삼청로)

“아무 거리에서나 잠시 멈춰 지나가는 군중들을 바라보라. 이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에 휩싸여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옷차림을 연출하면서도, 낯선 이들과 뒤섞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작위적인 춤을 창조해 낸다.”

- 줄리안 오피 -

거리의 사람들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향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이 있는 한 멈춰있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맞춰 움직인다. 하지만 움직인다 해도 세상을 앞지르기는 힘들다.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도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은 아닐까.

영국 골드스미스 대학을 졸업하고 YBA작가로 익히 알려진 줄리안 오피(Julian Opie, 1958 ~)의 초기 작품들은 1980년대에 건축물이나 도시 생활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오브제들을 재해석한 독특한 사물들을 구축해내는 조각가들이었고 그것들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작가만의 고유한 스타일로 풍경화와 컴퓨터매체를 이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오피 자신이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들은 컴퓨터를 거쳐 드로잉이 되었고, 디지털 미디어의 어휘들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도출되었다. 작품의 내용 뿐 아니라 작가 역시 시대의 움직임에 맞춰 변화되어진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갤러리에서 두 번째로 개인전을 갖는 이번 전시에서는 비닐 페인팅과 LED 패널 뿐 아니라 대형 신작 조각을 포함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각과 회화의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는 후기 모더니즘의 주요 작가 중 한 명으로서 그는 풍경화들을 현대적 문자, 혹은 기호와도 같은 형상으로



◀ Lily, eyes straight, head right, slight smile _ 216.6×141cm
Inkjet on canvas on wooden stretcher _ 2013

▶ Man with a bear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 bottle _ 216.1×94.2cm
Vinyl on wooden stretcher _ 2013

▼ People 2 (square) _ 168×168×12cm _ LED wall mounted _ 2014



로 표현하여 섬세하고도 독특한 그만의 스타일을 보여 주며, 일상 속에서 알게 되는 특정한 인물 혹은 장소를 통해 그것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삶의 역동성을 엿볼 수 있다.

인간은 활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드리고, 그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삶의 모습과 양상을 변화 시킨다. 사람들은 그 변화에 걸맞게 쉬지 않고 움직인다. 변해가는 환경 속에서 환경이 변화하기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변해가기에 환경도 변하는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의문을 제기하고, 좌절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모든 현대인들의 질문에 답변이라도 하듯 작가는 말한다.

“살아 있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드린 다는 것입니다. 저는 작품을 하면서 이제까지 받아드렸던 수많은 정보들이 떠올랐을 뿐입니다.”

_ 박일규 기자